

# “선생님과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요, 더 배우고 싶어요”

## ⑥ 방문교사 도움이 절실한 아이들

**#1** 필리핀 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박아영(가명·10·초교 3년)양. 박양은 지난 1월부터 매주 2차례씩 자신의 집에 찾아와주는 ‘방문교육지도사’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다.

박양은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했다. 한 달 월급이 50만원도 되지 않는 아버지의 수입으로는 세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하기 때문이다. 박양은 교육지도사 선생님과 공부를 한 이후 학업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하지만 박양은 내년 1월부터는 혼자서 공부를 해야 한다. 교육지도사 선생님과 공부할 수 있는 횟수가 1회 5개월씩, 총 2차례로 제한돼 있는 탓이다. 박양은 교육지도사 선생님과 계속 공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 중국인 어머니를 둔 이윤석(가명·7)군은 4개월 뒤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한글이 서툴다. 출산업에 종사하는 아버지와 공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어머니는 이군의 교육에 제대로 신경 쓸 수 없었다.

아직 숫자를 세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이군의 학업을 도와주는 사람은 방문교육지도사 선생님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군

을 돌봐주고 있는 교육지도사 선생님이 최근 이직을 검토하고 있어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군은 선생님이 오랫동안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처한 아이들을 가르쳐주기를 바라고 있다.

### 방문교육지도사 혜택 5개월로 한정돼 학습 단절

### 학습지도 전문교사 확충 시급·전문성도 높여야

다문화가정 구성원과 2세들에 대한 학업 보조 제도인 ‘방문교육지도사’가 여러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특히 방문교육지도사의 숫자가 크게 부족한 데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수혜 기간이 5개월로 제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제도 개선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문교육지도사는 일반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다문화가정 2세들의 학업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총 1만8915가정이 방문 교육지원을 받을 정도로 다문화가정의 호응도가 높다.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광주·

전남 18곳을 포함해 전국 157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방문교육지도사 2240명과 언어지도사 100명을 배치해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돕고 있다.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정 2세들의 학업을 지도하며, 언어지도사는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언어 지도를 맡고 있다.

복지부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을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지도사들의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문화가정 교육 지원 담당자들의 인력확충은 물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다. 서울대 사회교육과 연구진이 최근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60개 전국 대학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 강좌가 개설된 대학은 경기대와 고신대, 성신여대, 침례신학대 등 4곳에 불과했다.

연구를 주도한 모경환 교수는 “(유치원 교사 양성 과정에서) 다문화 강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교과 내용도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다문화가정 유아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다문화가정 2세들의 교육을 맡고 있는 방문지도사의 열악한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문지도사들이 낮은 임금 등을 견디지 못하고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곧 다문화가정 2세들의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방문교육지도사들은 1인당 4명의 담당 학생들에 대해 매주 2시간씩 2차례에 걸쳐 각 가정을 방문해 학업을 보조하고 있으나, 월 평균 임금은 80만원에 선에 머물러 있다.

손경희(여·53) 나주다문화가정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지도사들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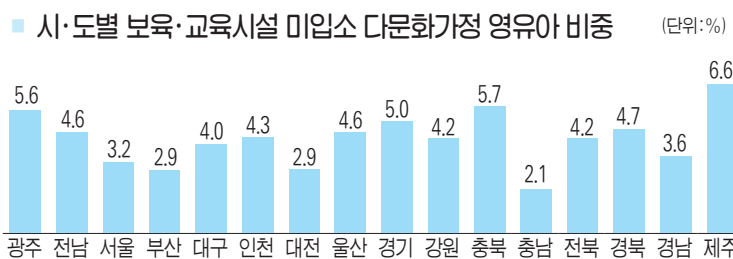


필리핀 출신 어머니를 둔 박아영(가명·10)양이 지난달 29일 영암군 영암읍 자신의 집에서 방문교육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 “너무 어려서 보육시설도 못가” 미취학자녀 상당수 홀로 방치



광주·전남지역 다문화 가정의 미취학 자녀 상당수가 사실상 집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최근 발간한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결과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육시설(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광주·전남 응답자 5.6%, 4.6%가 ‘돌보는 이 없이 아이 혼자’라고 대답했다.

실문 참여자들은 광주·전남 각각 395명, 987명으로 실제 자녀를 시설에 보내지 않은 다문화 가정이다.

광주의 경우 돌보는 이 없이 아이 혼자 지내는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6.6%), 충북(5.7%) 다음으로 높았고, 전남(4.6%)도 전국 평균(4.1%)보다 0.5% 포인트 높았다.

광주·전남 다문화 가정에서 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79.7%, 86.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가족(10.6%, 6.7%) 순이었다.

자녀를 시설 또는 기관에 보내지 않은 이유로는 ‘만 2세 미만이라 받아주지 않아서’라고 답한 광주·전남 응답자는 각각 42.0%, 44.9%로 가장 많았다.

‘시설에 보내는 것이 안심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각각 14.2%, 13.6%로 두번째로 많았으며, 전국평균(13.3%)보다 높

았다. 광주의 경우 ‘입학허부, 차별, 놀림을 받게 하라’는 응답비율이 1.6%로 전국평균(0.7%)보다 높았으며, 전남은 전국평균과 같았다.

전남은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라는 응답자가 6.3%로 전국 평균(3.1%)의 두배를 넘어 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먹어야 해결된다.**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여성탈모, 무모, 이제 고민 끝!

그동안 남모르게 고민해오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어 화제이다. 여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의 영양결핍입니다. 남성의 탈모의 원인은 모낭위축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제품도 달라져야겠죠? 모근에 영양공급이 바로고 감아서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먹는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빠르며 재빠르게 재가 쏠려야 합니다.

(통신판매처: 광주 19-5301호)

**대히트 오래~ 오래~**

신상품 룽~링

남자의 발기능력은 자기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소하고, 빠르고, 힘이 없고, 남성의 3대 고민은 오래~ 오래~ 룽~링으로 개선하자. 자동으로 흔들어 주고 떨어주며 통풍은 소프트하고 무게감이 없고 반영구적이며 위생적으로 탁월하여 여성으로부터도 호감을 받습니다. 생노명사 불노장생 책을 드립니다.

본 제품은 의료가 아닙니다.

02-2068-4142 010-3518-8995  
02-2068-4143 010-3611-8272

**손해사정사**

**대 개강 11월6일(土)**

시험예정 : 2011년 4월 24일(1차)

• 보험 계약 법(土) - PM 2~8시  
• 자동차보험이론(日) - PM 2~8시  
〈2개월 완성〉

최고 수준의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을 책임집니다.

**새롬행정고시학원**  
☎ 268-8111~2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공인 중개사 특강**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출강!**

전국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50명의 출제위원급 교수진과 50개 학원 네트워크를 통해 합격시키는 강의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개강 11월 8일** 주간반 야간반

**재직자 수강료 국비지원 선착순 60명!!**

**합격** 원하던만큼 한 수강료, 집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지 마시고 높은 합격률의 조건을 갖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새롬을 선택하십시오!

**새롬공인중개사전문학원**

광주점 (사구청앞) **361-8111** 전대점 (전대후문앞) **268-8111**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 직통: 227-9600 • FAX: 227-9500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396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예관법률위반 피고인: 김화자

위 피고인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예관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0년 10월 11일  
광주지방법원 재판장 판사 김도근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건번호: 2010노단 495  
사망자: 장정진(540712-1625834)  
최후주소: 여수시 율촌면 신봉리 11-129  
등록기준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108  
위 망 정정진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11월 1일  
• 공 고 인: 장미  
• 한정승인수리일: 2010년 10월 26일  
• 공고기간: 2010.11.01 ~ 2010.12.31  
• 신고 처: 여수시 율촌면 신봉리 37-52 장미(010-2300-8685)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0노단 495  
사망자: 조정서(550426-1663416)  
최후주소: 목포시 석항동 771-1 금강아파트 10-303  
등록기준지: 전남 완도군 신지면 대곡리 911  
위 망 조정서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11월 1일  
• 공 고 인: 김경숙  
• 한정승인수리일: 2010년 10월 21일  
• 공고기간: 2010.11.01 ~ 2010.12.31  
• 신고 처: 목포시 석항동 771-1 금강아파트 10-303 김경숙(010-7602-1262)